

윤리강령이 기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 프리차드, M. P. 모건

이 글은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각 신문사의 윤리강령이 기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연구한 것이다.

Sandra Braman 이 최근 지적한 바와 같이, 윤리강령이 기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현저하게 서로 다른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두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상황실험설계(Natural Experiment Design)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것이다.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사회통제기제인 규칙, 계약, 신문윤리강령 등은 합법적인 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정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규범보다는 기타 다른 많은 요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범과 그것이 규제하고자 하는 행동간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식적 규범인 규칙, 계약, 윤리강령 등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법사회학자인 Stewart Macaulay 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규범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미묘하여 분명치 않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윤리강령을 채택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필연적으로 좀더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윤리강령과 기사작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윤리강령이 기자들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과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윤리강령에 관한 학문적인 글의 대부분은 규범적인 것들이어서 윤리강령과 기자들의 행동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신문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74 년에 신문편집국장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신문의 9%만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0 년 후인 1984 년에는 조사대상 신문의 반 이상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행인, 편집인, 편집기자 등 신문기자의 60%가 성문화된 윤리 강령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ouglas Anderson 의 조사에 따르면, 1/4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기자들을 해고했다고 응답하는 등 윤리강령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윤리강령이 기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충분치 못하며, 또한 그 증거들을 해석하는 일도 어렵다. David H. Weaver 와 G. Cleveland Wilhoit 가 저널리스트 1,001 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편집국에서 배운 산 경험이 언론윤리에 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들은 과거 행동에서 얻은 일상적인 지식이 언론 윤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신문이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윤리기준이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가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좀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갖고 있는 신문이 윤리강령을 좀 수월하게 채택할 것이라는 점과, 윤리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좀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뿐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된 상황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한 몇몇 연구가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한 규정과 기자행동과를 연관시킨 연구는 없다. 금전관계가 배제된 이익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Katherine C. Mc Adams 는 그러한 갈등은 외적인 권위와는 상관없이 사례별로 고도의 사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강령과 기자행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신문사에서 기자들의 행동이 그들이 몸 담고 있는 신문사의 윤리강령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는 단순히 윤리 강령이 신문사내의 기존관행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설명에 불과할 뿐이다.

윤리강령과 기자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좀더 만족스러운 연구방법은, 윤리강령을 채택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기자들의 행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실험실 상황이나 학문적인 「실재의 세계」에서 할 수 있다. 다음에 언급하는 자연상황실험(Natural Experiment) 연구는 통제된 실험실 연구와 실재 상황에서의 현장조사의 요소를 결합한 연구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방법은 Donald T. Campbell 과 그의 동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의 타당도가 문제가 된다.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1987 년을 기준으로 발행부수가 23,000 부민 조간 Indianapolis Star 지와 12,000 부민 석간 Indianapolis News 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신문이 채택한 윤리강령의 이용정도와 그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또한 6 개의 가설적 상황을 설정, 이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 가설상황은 Philip Meyer 가 1983 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할 때 사용한 것이다.

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에는 언론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원성의 정도 및 지방정치문화에 대한 수준 등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요인은 동일하다. 또 편집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Star 지와 News 지는 같은 그룹에 속해있으므로 적어도 언론에 대한 입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조직의 특성 또한 일정하다. 이와 더불어 두 신문사는 편집기준과 주요 보도유형도 비슷하다.

어떤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자연상황실험은 실험실 연구나 현장조사에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상황실험에서는 관찰과 분석을 할 수 없는 실험을 설계, 실시할 수 있다. 때로는 사회 정치적인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Natural Function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자연변인은 인디애나폴리스시의

두 신문사가 여러 조건들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채택하고 있는 윤리 강령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News 지 편집장인 Frank Caperton 은 다른 신문사의 윤리강령을 수집, 연구하여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 인 지 침들을 근거로 1985 년에 윤리강령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을 각 부서장들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2 차 수정안을 작성했다. 이 수정판은 발행인인 Eugene S. Pulliam 과 편집인에게 제출되었고, 한부는 편집국 게시판에 부착, 기자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2 차 수정안에 대한 강력한 항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각 부의 데스크와 기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윤리강령은 News 지 신입사원용 핸드북(Handbook)에 게재되었다.

1,060 단어로 된 News 지의 윤리강령은 이익갈등 부분에만 초점을 두었다. 윤리강령은 기자들에게 지나친 환대나 여행, 기타 다른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쟁매체를 이기고, 가능한 정보원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Star 지 윤리강령 역시 편집기자들에게 이익갈등의 문제는 피할 것을 충고하면서, News 지 윤리강령에 언급되지 않은 보도와 기사작성에서의 공정성, 민감성, 동정심을 좀더 많이 강조한다. 윤리강령의 반 이상을 「편집기자들은 기사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그 기사가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고 직업을 잃게 할 만큼 충분히 정당한가? 이런 것을 편집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자들 역시 기사를 취재하는 데 있어서 동정심을 너무 많이 잃어서는 안된다./ 기사를 취재하는데 있어 당신 자신을 옳게 인지했는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원을 밝혀라/ 간단히 말해 당신이 기사화한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공정해라」 는 등의 충고와 아울러 공정성, 민감성, 동정성에 관한 정의와 그에 관한 지침규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News 지와는 달리 Star 지의 편집기자들은 자신들이 윤리강령 제정에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Star 지의 편집장은 1980 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에 관한 편집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윤리강령을 작성했고, 법률고문이 이를 검토하여 수정했다. 이 수정안이 신입사원용 핸드북에 게재되기 전에 각 편집부서에 회람되어 의견을 수렴했다.

New 지의 편집기자들은 윤리강령의 채택에 자신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Star 지의 기자들보다 좀더 윤리강령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News 지 편집기자들이 그들의 윤리강령에 좀더 친숙했고, 좀더 가까이 갖고 있고, 윤리강령을 좀더 많이 이용하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의 윤리강령이 망라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r 지 기자들(17%) 보다 News 지 기자들(45%)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언론인가의 판단력을 기르는데 윤리강령이 중요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의 중심과제는 「신문윤리강령」 과 「윤리문제가 야기된 상황에서의 기자의 결정」 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익갈등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Star 지와 News 지의 기자들은 이익갈등문제가

야기되는 가설적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또 윤리강령 제정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News 지 기자들이 그런 문제에 어느 정도는 더 민감할 것이다.

보도의 공정성, 민감성, 동정성 등을 강조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한 Star 지 기자들은 이들과 연관된 가설적 상황에 있어서는 News 지 기자들보다 좀더 공정하고 민감하고 동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설문지는 1987년 2월에 Star 지 기자 45명, News 지 기자 37명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각 신문사의 우편함으로 보내졌다.

Star 지에서 45명 중 35명이 응답해 78%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News 지에서는 37명 중 21명이 응답해와 57%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는 82명 중 56명이 응답하여 6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결과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실험에 있어서 집단을 비교 ·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Star 지의 응답자들이 ① 연령, 교육정도, 근속연수, ② 성, 우주관, 언론관, ③ 종교모임에 참석하는 정동 등의 변인에 있어 News 지 응답자들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집단간 차이검증(Difference-of-meantest)를 실시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p>0.5$). 이와 더불어 양 신문사의 응답자들은 언론윤리에 대한 사고를 평 성 하는 데에는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편집국에서의 산 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유사성은 양 신문사의 기자들간에는 분류상의 편집국과 관련없는 항목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가설적 상황은 가능한 응답의 범위를 주었다. 예를 들면 이익갈등 상황에서 이를 지각하고 이익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한 기자들은 이익갈등문제에 종 덜한 관심을 보인 기자들에 비해 좀더 윤리적일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이와 비슷하게 공정성, 민감성, 동정성의 항목에 있어서는,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기자들은 좀더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증정성, 민감성, 동정성의 항목뿐만 아니라 이익갈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양 신문사의 기자들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흥미를 가졌다. 각각의 가설적 상황에서 Star 지 응답자들이 News 지 응답자들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 Wallis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익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들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기 위해 양방적 가설검증방법을 사용했다. 어쨌든 공정성, 민감성, 동정성에 관한 항목의 경우, 특별히 Star 지 윤리강령이 이 문제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Star 지 기자들이 좀더 「윤리적」일 것이므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항목들은 일방적 가설검증방법을 사용했다.

이익갈등에 관한 세 개의 가설적 상황에 있어서 Star 지와 News 지의 기자들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첫번째 가설적 상황은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특정 정치집단의

행동을 조사할 것을 할당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익갈등의 질문이 없다.

양 신문사 기자들 대부분은 요구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첫번째의 가설적 상황은 특정 집단의 목적을 전혀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자는 그 집단에 관해 공정 하게 보도해 야 하는가는 문제를 야기했다. 두번째 가설적 상황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자인 자신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친근한 뉴스원에 대해서도 보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News 지 기자 중 약간의 다수(slight majority)는 다른 견해를 가진 기자들로 하여금 자신 의 견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tar 지와 정반대였다. Star 지 기자 대부분은 기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견해를 갖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의미가 없다.

세번째 가설적 상황은 금전적인 이익갈등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컴퓨터를 사용한 기자가 한 세미나에서 그 컴퓨터회사가 후원했다고 발표한 대가로 500 달러를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가?

양 신문사 기자들 대부분은 세미나에서 후원사실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가설적 상황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세개의 가설적 상황을 공정성, 민감성, 동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첫번째 가설적 상황은, 돈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호텔의 화재현장에서 상처 없이 탈출한 지방유지에 관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이다. 그 지방유지의 이름이 보도된다면 자살의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News 지 응답자의 48%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Star 지 기자들은 응답자 중 20%만이 완전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Star 지 기자 중 60%는 그 지방유지의 이름은 보도하되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밝혀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News 지 기자들은 응답자 중 38%만이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따라서 민감성과 동정성을 강조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한 Star 지의 기자들이 그렇지 못한 News 지의 기자들에 비해 이 문제에 관해 좀더 민감하고 동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가설적 상황은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 추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 당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 기자가 당원으로 가장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녹음기가 든 서류가방을 건네주면서 그것을 대통령 후보가 앉은 책 상에 놓게 한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는 그 서류가방을 회수한다. 이 경우 편집자는 녹음기에 수록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Star 지 응답자 중 55%는 편집자가 그 기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지만 그 녹음기록을 일상적인 보도의 배경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News 지의 경우 37%만이 이 견해에 동의했다. News 지의 응답자 중 58%는 편집자가 해당 기자에게 경고하고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Star 지의 27%만이 이런 견해에 동의했다. 이 차이는 의미가 있다($p<.02$).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양 신문사의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미루어 기대했던

차이와는 정반대이다. 뉴스취재시 공정성과 성실성을 강조한 윤리강령을 갖고 있는 Star 지의 기자들보다는, 윤리강령에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News 지의 기자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더 까다로웠다.

세번째 가설적 상황은 레바논에서 풀려난 인질들이 인디애나폴리스 친척집에 머물기 위해 온다는 것이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한 경쟁은 맹렬할 것이다. 이미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들은 친척집 정원에 진을 치고 있다. 편집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양 신문사의 편집기자들 대부분은 편집자가 공공연한 발표를 해서는 안되며, 기자들에게 신중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차이는 의미가 없다.

토의

이 연구의 결과는 윤리강령이 기자들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입증하지 못한다. Star 지 기자들이 News 지 기자들에 비해 좀더 공정하고 민감하고 동정적인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 차원에서 다른 세계의 가설적 상황 중 오직 한개의 상황에서만 Star 지의 기자들이 좀더 「윤리적」이었다. 다른 하나에 있어서는 News 지 기자들이 좀더 윤리적이었고 세번째는 양 신문사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어쨌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양 신문사의 윤리강령이 어떻게 채택되었는가에 따라 복잡하다. 위에서 결정되어 하향으로 전달된 Star 지와는 대조적으로 윤리강령의 채택에 참여를 유도한 News 지의 특성은 이 연구에서 통제되지 않은 변인이었다. 그들의 윤리강령에 좀더 충실하려는 News 지 기자들의 성향이 Star 지 기자들보다 더 「윤리적」이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익갈등의 문제에 대한 양 신문사 편집기자들의 응답은 통계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윤리규정과 같은 공식 규범의 공표가 직접적으로 언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부정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의 내용과 윤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언론행동면에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간접적이고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성문화되지 않은 직업적인 규범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제라고 Meyer 교수는 믿는다. 그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들은 편집문화에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강요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은 윤리강령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행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문화된 윤리강령은 뉴스조직이 전문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지반, 즉 편집기자, 정보원, 광고주 공중 등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강령의 의도는 결코 실제의 언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강령은 뉴스매체가 오만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의도가 중요할 뿐이다.